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

성명		수험 번호							2				
----	--	-------	--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행동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 인생이라는 예술에서 인간은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예술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인간은 조각가인 동시에 모델이며, 의사인 동시에 환자이다.
- 하늘은 사람이 선(善)을 욕구하면 선을, 악(惡)을 욕구하면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그 권능이 자신에게 있어 선을 행하면 내 공(功)이고, 악을 행하면 내 죄(罪)가 되는 것이다.

- ① 감정을 통해 외부 자극을 인식하는 존재이다.
- ② 주체적으로 가치있는 삶을 선택하는 존재이다.
- ③ 언어와 문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존재이다.
- ④ 사회적 명령이나 관습에 따라 행위하는 존재이다.
- ⑤ 도구를 제작하여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2.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주장하는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제자가 인(仁)에 대해 묻자, 스승이 말하였다.
 “㉠인(仁)이란 자기를 단속하여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기를 단속하여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모두 그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린 일이겠는가.”
 제자가 말하였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스승이 말하였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한다.”

- ① ㉠은 인간의 행위를 외적으로 규제하는 도덕규범이다.
- ② ㉠은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으로써 실천된다.
- ③ ㉠은 존비친소(尊卑親疎)를 구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랑이다.
- ④ ㉡은 재화를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기준이다.
- ⑤ ㉡은 옳은 일을 계속 실천하여 얻어지는 도덕적 기개이다.

3.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등장한 (가), (나), (다)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조화를 반드시 얻게 되고, 하느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만사(萬事)를 깨닫게 된다.
- (나) 동양인들은 형이상(形而上)에 밝고 서양인들은 형이하(形而下)에 밝기 때문에, 우리의 도(道)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器)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이니, 이처럼 도와 기는 맞닿아 있다.
- (다) 몸을 닦아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바로잡힌다면, 양품(洋品)이 쓰일 곳이 없어져 교역하는 일이 끊어질 것이다. 교역하는 일이 끊어지면 저들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가)는 민족 고유 사상을 배척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였다.
- ② (나)는 기존의 지배체제와 성리학적 질서를 모두 부정하였다.
- ③ (다)는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만민 평등주의를 표방하였다.
- ④ (가)는 (나)에 비해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다.
- ⑤ (나)는 (다)에 비해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4. (가) 중에서 (나)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 사회를 제시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
○ 노자의 소국과민	○ 국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본다.
○ 플라톤의 이상국가	○ 통치 계급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바쿠닌의 무정부사회	○ 계급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 루소의 민주적 이상사회	

- ① 폭력 혁명을 통한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 ②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리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 ③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를 추구하였다.
- ④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누리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 ⑤ 모든 구성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과 일치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기가 물어대면 밤새 잘 수가 없다. 지금 인(仁)의 도덕을 말하는 것은 귀찮게 인심을 어지럽혀 혼란만 더하는 것이다. 하늘은 저절로 높고, 땅은 저절로 두껍고, 해와 달은 저절로 빛나고, 별은 저절로 늘어서 있고, 초목은 본래 종류가 여럿이다. 거기에 다시 인의(仁義)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북을 두드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다.

- ①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 ②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을 확충해야 한다.
- ③ 인간과 사회의 혼란은 인위적인 제도에서 비롯된다.
- ④ 공(空)을 깨달아 나에 대한 이기적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⑤ 도덕이 실현되려면 외적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6. 표는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이 답한 가상 설문 결과이다. 각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그렇다, × : 아니다)

항 목	응 답		
	갑	을	병
1.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	○	○
2. 행위의 도덕적 판단 기준은 결과이다.	○	○	○
3. 근대 서양 사상인 경험론에 영향을 주었다.	○	×	×
4.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이 조화되어야 한다.	×	○	○
5.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	×	○	×

- ① 갑은 아타락시아를 이상적 경지로 추구하였다.
- ② 을은 참된 인식을 위해 우상 타파를 역설하였다.
- ③ 병은 중용의 습관화를 통한 행복 추구를 강조하였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육체적 쾌락의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 ⑤ 을과 병은 쾌락 추구에 있어 외적 제재를 강조하였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행자들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이다. 이는 비천하고, 저속하며, 세속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행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는 고통스럽고, 무지하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아, 수행자들이여. ㉠이것을 깨닫는다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① 사성제(四聖諦) 중 집성제를 가르키는 것이다.
- ② 세상이 공허하다는 허무주의를 깨닫는 것이다.
- ③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자아를 의미한다.
- ④ 출가 수행을 통해 불변하는 실체를 찾는 것이다.
- ⑤ 현실이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 성왕(聖王)은 궁실(宮室)을 지을 때 단지 생활의 편의를 고려했을 뿐 결코 보고 즐기 위하여 짓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궁실을 짓는 법은 이롭지 않은 것에는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는 것은 성왕의 도(道)이며 천하의 큰 이익이다.

- ① 겸애(兼愛)를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 ② 무위(無爲)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없애야 한다.
- ③ 성현의 예(禮)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수기와 수양을 통해 인의(仁義)를 확충시켜야 한다.
- ⑤ 좌망(坐忘)을 통해 주관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9.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감각과 경험에 근거한 앎을 지향한다.
- ② 을은 금욕을 통한 중용의 덕을 추구한다.
- ③ 병은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여긴다.
- ④ 병은 갑과 달리 도덕적 실천의지를 강조한다.
- ⑤ 을과 병은 현실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는다.

10.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치지격물(致知格物)'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사물물에 발현하는[致]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발현하는 것이 치지요, 사사물물이 저마다 그 이(理)를 획득하는 것이 격물이므로, 여기서 심(心)과 이는 하나로 합쳐진다.
 을: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달려 있다."라고 함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理)를 궁구(窮究)해야 한다는 말이다.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가 내재해 있다. 다만 그 이를 제대로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내 앎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 ① 갑은 앎과 행함을 본래부터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 ② 갑은 양지를 후천적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을은 이론적 학습을 거쳐야 인간의 본질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 ④ 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았다.
- ⑤ 갑은 학문의 목적을 인간의 도덕성 구현에, 을은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두었다.

11. (가), (나) 윤리 사상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인생은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의 선택(Choice)이다. 사물은 그 기능과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은 없다. 따라서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기능, 목적, 본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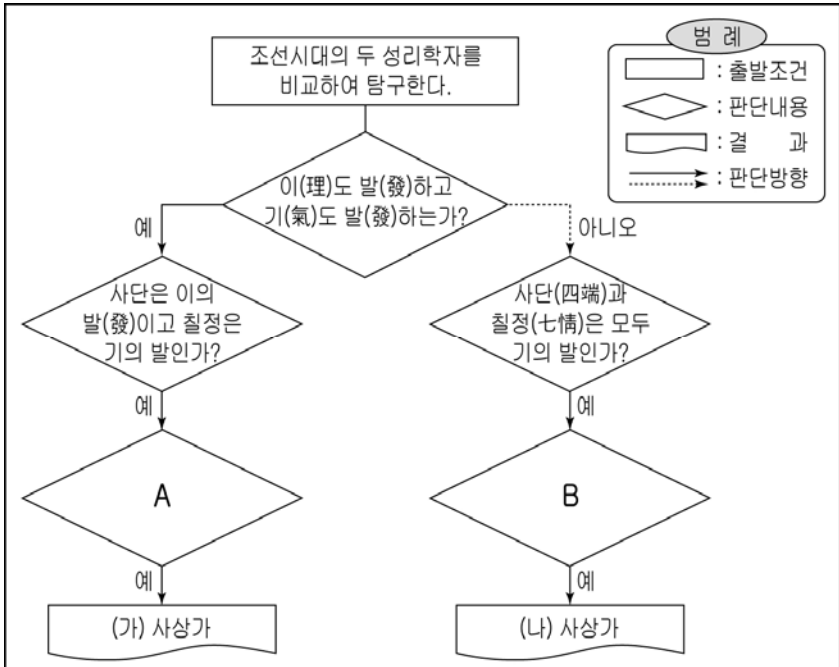
(나)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야 하는 맹목적 충동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삶 또한 끊임없는 욕구의 연속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 생존의 문제는 이 의지의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벗어나는가이다.

<보 기>

ㄱ.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한다.
 ㄴ. 인간의 현실적인 삶 자체를 중시한다.
 ㄷ.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ㄹ. 삶의 본질을 비합리적인 관점으로 파악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 A, B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ㄱ. 이의 능동성을 인정하는가?
 ㄴ.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이 사단인가?
 ㄷ.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限)되는가?
 ㄹ. 이는 존귀(尊貴)하고 기는 비천(卑賤)한가?

- | | | | | | |
|---|------|------|---|------|------|
| | A | B | | A | B |
| ① | ㄱ, ㄷ | ㄴ, ㄹ | ② | ㄱ, ㄹ | ㄴ, ㄷ |
| ③ | ㄴ, ㄷ | ㄱ, ㄹ | ④ | ㄴ, ㄹ | ㄱ, ㄷ |
| ⑤ | ㄷ, ㄹ | ㄱ, ㄴ | | | |

13. 다음 대화에서 을의 사상적 입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행복은 각자의 자율적 선택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이기 때문입니다.

을: 사회적 토대가 없는 개인의 행복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때만이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보 기>

ㄱ.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ㄴ. 개인의 이익과 능력은 사회성과 분리될 수 없다.
 ㄷ.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ㄹ. 사회 질서는 개인의 존재와 이익을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이성이며 곧 신(神)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신의 섭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성으로 신의 섭리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따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① 자연적 인과법칙이 곧 신의 섭리이다.
 ②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③ 현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식만이 가치가 있다.
 ④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인간은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⑤ 인간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

15.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배우지 않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본성이라 하고,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인위(人爲)라 한다. 인간의 이기적 성품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偽]이다.

을: 사람이 학문을 하는 까닭은 그 본성이 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르던 개나 닭이 도망가면 찾으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이 도망가면 찾으려 하지 않는다. 배움의 도(道)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마음을 찾는 것이다.

- ① 인간 본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음을 모르고 있다.
 ② 후천적인 노력만 강조하여 타고난 본성을 훼손하고 있다.
 ③ 어진 마음은 본래 있는 것이고 옳음은 밖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④ 인의(仁義)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⑤ 인간 본성은 되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16. 그림에서 을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경제적 토대가 의식을 결정한다.
- ㄴ. 인간의 역사는 추상적 원리의 전개 과정이다.
- ㄷ.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회 제도가 형성된다.
- ㄹ. 인간의 정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현명한 군주는 저절로 선량한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대상이 한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術)을 터득한 군주는 우연한 선을 따르지 않고 반드시 그러한 도를 행한다.
 을: 군주가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 또한 군주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긴다. 임금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백성들과 함께 즐겨야 한다. 그래야 왕도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① 갑은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을 지향한다.
- ② 갑은 예(禮)를 통한 효율적 통치를 중시한다.
- ③ 을은 엄한 형(刑)과 무거운 벌을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 ④ 을은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백성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은 도덕적 교화, 을은 강제적 수단을 통한 통치를 추구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조선 시대 사상가의 견해로 옳은 것은? [3점]

○ 성(性)이란 이(理)가 아니라 기호(嗜好)이다. 성은 특정한 실체가 아니라 어떤 실체가 가진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며, 정신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치를 따로 떼어 내 붙인 이름이다.
 ○ 사람의 선·악은 타고나는 기품(氣稟)의 청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기질의 편차는 선·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진정한 악은 육신(肉身) 즉, 기질 또는 생물학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인간적 조건에서 온다.

- ① 덕은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 ②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다.
- ③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다.
- ④ 성인이 되기 위해 현실적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⑤ 인간과 사물은 모두 동일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

19.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역사는 절대 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이다. 인륜(人倫)은 가족, 시민 사회, 국가라는 세 단계를 거쳐 변증법적으로 발전해간다. 윤리적 삶이란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각자의 생존과 사회적 질서, 평화를 위하여 절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도덕적 의무는 자연적인 권리를 양도하는 자발적인 약속을 맺음으로써 발생한다.

- ① 갑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 도덕규범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한다.
- ③ 을은 실천 이성에 따른 의무론적 윤리를 강조한다.
- ④ 을은 도덕적 규범이 사회계약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개인과 국가를 모순과 대립 관계로 파악한다.

20. A의 행위를 평가한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와 함께 길을 가던 서양 윤리 사상가인 갑과 을은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이 때 A가 주저 없이 다가가 그 사람을 부축하여 병원으로 데려갔다.

갑 : 타인을 돕는 행위는 도덕적 시인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야.
 을 : 아니야,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 의식과 도덕 법칙에 기초한 행동이기에 선한 행동이야.

- ① 갑은 그 자체로 선한 것만이 가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감정에 기초한 도덕감을 행위의 동기로 간주한다.
- ③ 을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을은 행위의 결과나 자연적 경향에 따른 행동을 중시한다.
- ⑤ 갑은 보편성, 을은 효용성을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